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3/10~2025/03/16]

2025.03.17

[로봇] 속도감의 차이

- AW 2025 개최. 주요기업들 신제품 등 공개. 아쉽게도 새롭게 느껴지지지는 않았던 전시회
- 구글 제미니 AI 로보틱스 공개. 피규어는 BotQ 생산시설 공개. 양산형 피규어 3.0 공개 임박
-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퇴한 미국 아이로봇의 몰락.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어떻게?

[방산] 라인메탈의 실적, 그리고 증설하는 유럽 방산

- 폴란드 K-2, 현지 양산보다 한국 양산 물량이 더 늘어날듯
- EU의 역내 무기 조달 방침. 당연한 수순이고, 한국은 유럽 현지 양산 체제 구축 필요
- 미국 무기를 거부하는 유럽, 무너진 제조업 시설을 방산으로 전환하는 유럽

[항공] 미국의 부진은 우리랑 상관없다

- 새로운 대한항공의 CI/비전 공개. 프리미엄 경쟁력 강화 초점
- 티웨이항공, 주주총회에서 대규모 경영진 교체 진행. 정호근 사장으로 퇴임
- 보잉의 인도는 호조. 일각에서는 관세 영향으로 보잉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 제기

[조선] 한국은행의 중국 조선업 분석

- 한화오션 월리 쉬라호 MRO 완료. 미국과 신뢰도 상승. 미국에서는 동맹국 활용 강조
- 미국의 해운/조선 경쟁력 강화 정책, 현실 가능성 대해 회의적 시각 확산
- 이번 주 KDDX 진행 방침 공개 가능성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속도감의 차이

지난 주 AW 2025가 성황리 개최. 다수 기업 참여했으나, 작년 로보월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아쉬움. 반면, 해외에서는 AI 개발과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소식 이어져. 속도감의 차이는 여전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5)

[속도감의 차이]

■ 지난 주 AW 2025가 코엑스에서 개최. 국내 로봇 기업 다수 참여. 휴머노이드 및 AI 기술 기대감 확대 흐름 속, 전시회에서도 국산 핸드(테슬라)와 관련 부품(에이딘로보틱스), 일부 원격 조작 기술 눈에 띄었으나, 작년 10월 로보월드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었음. 같은 주, 구글의 제미니 2.0 기반 로봇 AI 공개, 피규어 시의 연 1.2만대 규모의 양산 시설 BotQ 공개, 중국의 휴머노이드 투자 및 신제품 공개와 비교하면 확연한 속도감의 차이가 느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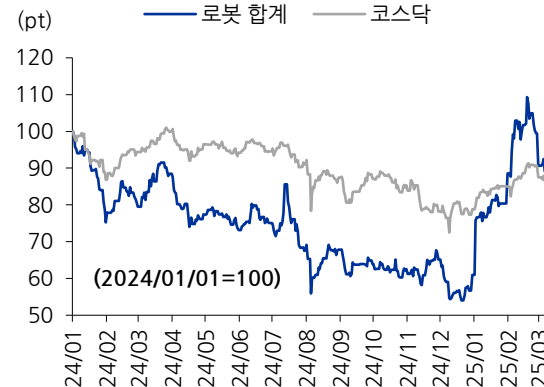
■ 이번 주에는 GTC 2025 개최 예정.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 로봇/AI 기업 연사들이 다양한 세션에 참여 예정. 작년 GR00T, 올해 초 COSMOS에 이어 로봇 관련 혁신 기술 공개 기대감 형성될 것

Key Chart: GTC 2025 주요 로봇 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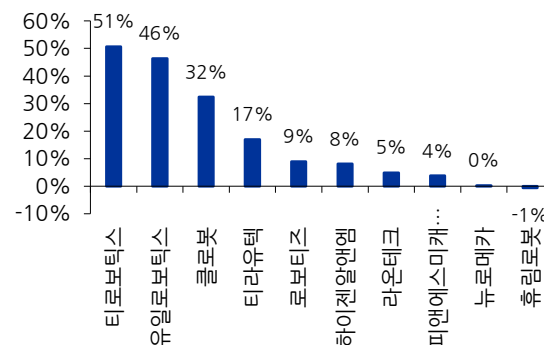
일자(KST 기준)	주제	참여자
3월 20일 오전 2시	AI for Humanoid	Pieter Abbeel(UC Berkeley)
3월 20일 오전 2시	A New Path to Embodied AI	Skid AI CEO
3월 20일 오전 6시	A New Era of Generalist Robotics	Skid AI CEO, Boston Dynamics CTO, Agility Robotics CTO, 1X CEO 등

자료: 엔비디아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3/10~03/16)

[산업용 로봇]

- HD현대로보틱스, 하이브리드 협동 로봇 내년 출시 목표
- 뉴로메카 "포스코와 다수 자동화 프로젝트 검토 중"

[서비스 로봇]

- 레인보우로보틱스-티로보틱스, 물류자동화 로봇 협력

[기타(정책/부품/SW)]

- 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최종 승인
- 티엑스알, 일반청약 증거금 4조. 경쟁률 816대 1
- 현대엘리, 승강기-로봇 연동서비스 상용화 박차
- LG전자, 스마트팩토리에 중국산 로봇 도입 검토
- 에이딘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용 센서 공개

[Global]

- 구글 생성 AI 기반 제미니 2.0 로보틱스 공개
- Figure, 양산 시설 BotQ 공개. 연 1.2만대 생산 능력
- 보스턴다이믹스·피규어, 휴머노이드 개발에 GR00T 적용
- 아이로봇, 존속 가능성 우려에 추가 급락
- 머스크 "옵티머스 태운 스타십, 내년 말 화성 향할 것"
- Dexterity AI, 9,500만달러 유치. 기업가치 16.5억달러
- 로크웰, 픽킹 솔루션 라이트핸드 로보틱스에 전략 투자
- 中 유비텍, 연구용 휴머노이드 로봇 '텐궁싱저' 발표
- 中 애지봇,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링싱 X2' 발표
- 中 린스다이나믹스, 1,000억원 규모 시리즈 A 자금 조달
- 中 두봇, 휴머노이드 '두봇 아툼' 개발
- 中 샤오펑, 향후 로봇 개발에 500~1000억원의 투입
- 일본 2월 공작기계 수출 5개월 연속 전년비 플러스



Weekly Keyword

라인메탈의 실적, 그리고 증설하는 유럽 방산

최근 유럽 및 한국, 일본 방산주 강세 지속. 유럽의 자주 국방 수요 확대 및 방위 예산 증가 전망, 방산 증설 이슈 나오며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23)

[라인메탈의 실적, 그리고 증설하는 유럽 방산]

- 라인메탈이 4Q24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98억 유로(+36%yoy), 영업이익 14.8억 유로(+61%yoy, OPM 15.2%) 기록. 수주잔고는 550억 유로로 전년 383억 유로 대비 44% 증가. 25년 매출액 25~30% 성장 전망. 방산 부문 매출은 35~40% 성장 전망. OPM 15.5% 기대. 유럽 내 방산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성장 흐름. 상기 전망치는 최근 유럽 내 수요 변동을 반영한 수치는 아니며, 조정 가능성 있음
- 라인메탈을 비롯, KNDS, 레오나르도 등 유럽 방산 기업들 자동차 등 타 산업 제조시설을 방산 제조 라인으로 전환할 방침을 지속 공개. 증설에 보수적인 방산 기업들이 증설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무기 수요와 유럽 내 자금 조달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점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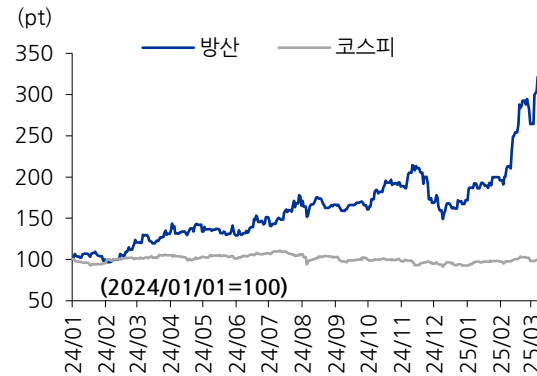
Key Chart: 라인메탈 24년 주요 실적 내용

Rheinmetall with landmark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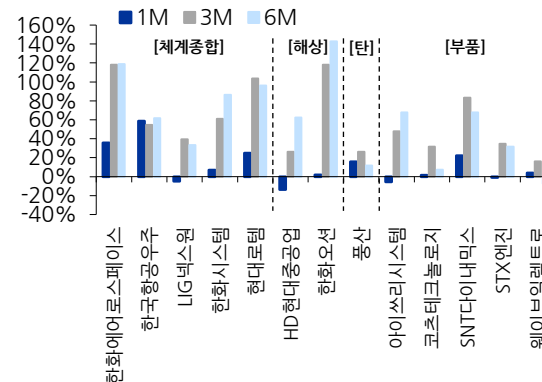
SALES	OPERATING RESULT	OPERATING MARGIN	APPLICATIONS
9,751 +36%	1,478 +61%	15.2% +2.4pp	>250,000
€m	€m	in % of sales	globally
OFCF	RHM NOMINATION	RHM BACKLOG	DIVIDEND
1,045 (356)	26,843 (19,881)	54,973 (38,290)	8.10 (5.70)
€m	€m	€m	€

자료: Rheinmetall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3/10~03/16)

[수주/계약]

- KAI, 인니와 930억 항공기 수명연장 사업 수주
- 폴란드, 현실적 문제로 K2GF 전차 180대 추가구매 전망
- STX엔진, 호주 레드백 디젤엔진 840억 공급 계약 체결
- 캐나다, 155mm 자주포 98문 도입 추진. 한화 물밑 접촉
- 호주, 한화시스템에 'C4I' 문의. 방산 SW 첫 수출 기대

[기업별 이슈]

- 한화, 루마니아 총리실장과 K9 현지 공장 세부 논의
- 한화방산3사, 28년까지 무인차량 플라잉업 개발
- 한화LIG, 정부-국회 중재에도 이라크 수출 협상 평행선
- 인니가 안 낸 KF-21 분담금, KAI가 1,200억원 부담
- KAI, 젠젠에이아이 지분 10% 투자. AI 파일럿 개발 속도
- KAI, 칠레 국영 항공사 에나에르와 협력 논의
- 현대로템·STX, 페루軍방산업체와 고위급 회담 개최

[기타]

- 한화운용 'K방산 ETF' 순자산 5천억원 넘어

[글로벌]

- 포르투갈, 美 F-35 전투기 구매 제안 사실상 거부
- 폭스바겐 방산 진출 검토. 가동 중단한 獨 공장 두 곳 활용
- EU 1,500억 유로 무기 공동자금 대출금 관련 유럽산 한정
- 독일 인프라국방 '역대급 돈풀기' 협상 타결
- 미-우크라 30일 휴전 추진에 러시아 선긋기
- 美,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개
- 미국, 대만에 '국방예산 GDP 5%-의무복무기간 2년' 요구
- T-45 해군 제트 훈련기 함대 엔진 사고 후 운항 중단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미국의 부진은 우리랑 상관없다

지난 주, 미국 항공주 급락.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한국은 미국 항공업과 구조도 다르고, 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해외 여행 수요 이어지고 있음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3)

[미국의 부진은 우리랑 상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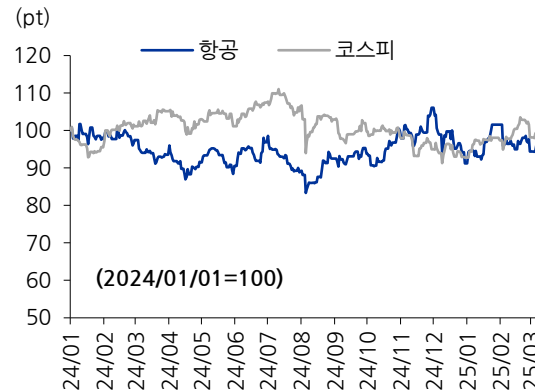
-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이 JP 모건 산업 컨퍼런스에서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함.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속 국내 여행 수요 감소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되는 여객기 사고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한 영향. 한국은 국제선보다 국내선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항공사와 사업 구조가 다름(대한항공: 국제선 95% 국내선 5%/델타항공: 국제선 31%, 국내선 69%). 한국 항공업은 여전히 해외 여행 수요 견조하고, 연말 이후 여객기 사고에도 크게 수요단에서 확인되는 악영향은 없는 상황

Key Chart: 미국 항공기 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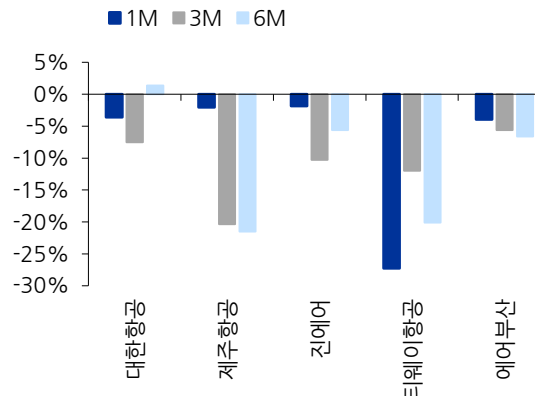
항공사	일자	내용
아메리칸항공	1월 29일	소형 여객기와 육군 헬리콥터 충돌
항공급서비스	1월 31일	소아환자 태운 소형의료항공기가 필라델피아 근교 추락
델타항공	2월 17일	캐나다 공항에서 기체 전복. 20명 후송
아메리칸항공	3월 13일	덴버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엔진 화재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3/10~03/16)

[여객/화물]

- 2월 국제선 여객, 제주항공 LCC 승객 1위 재탈환
- 에어프레미아, 하와이 노선 주 4회 정기 취항

[기업별 이슈]

- 통합 출범에 나서는 대한항공, 41년만에 CI 교체
- 대한항공 프리미엄 이코노미 777-300ER에 본격 도입
- 조원태 회장,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능성 부인
- 진에어, 정비 인력 60명 채용, 안전운항 강화
- 티웨이항공, 올해 정비사 170여명 채용 계획
- 티웨이항공, 27년 말까지 B737-8 20대로 확대
- 티웨이항공, 주주총회서 사내/외 이사 대규모 교체
- 에어프레미아, 기재 부족으로 무더기 지연-결항 논란 확대
- 하이에어, '체리에어'로 사명 변경

[기타]

- SK에너지, 홍콩 국적 항공사와 2만톤 SAF 공급 계약

[글로벌]

-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美 항공사들, 수익 기대치 하향 조정
- 사우스웨스트 항공, 무료 수하물 정책 변경 발표
- 보잉 2월 항공기 인도 44대 기록. 24년 대비 큰 폭 개선
- 보잉, 이탈리아 부품사와 부품 스캔들. B787 500대 영향
- GE에어로, 미국 엔진 생산 확대에 10억달러 투자
- 일본 하네다공항 2터미널 확장 완료. 인천과 경쟁
- 에어캐프, 트럼프 관세로 787 대당 최대 4천만달러 전망
- 웨스트젯, 4월3일 인천-캘거리 재취항
- KLM 올 하계 시즌 인천~암스테르담 노선을 주 7회로 증편



Weekly Keyword

한국은행의 중국 조선업 분석

지난 주, 한국은행에서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 중국 조선업의 수주 기준 시장 점유율 70%로 올라오고, 기술적으로도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

[한국은행의 중국 조선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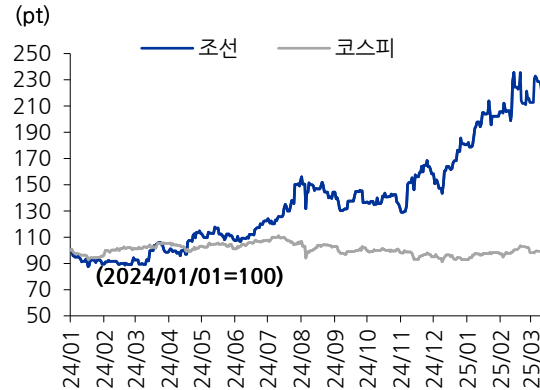
- 지난 주, 한국은행이 중국 조선/해운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조선업은 24년 기준 수주 기준 점유율 70%. 한국의 16%를 크게 상회. 성장 요인은 (1) 중국 정부 지원, (2) M&A 통한 대형화 (CSSC+CSIC), (3) 가격 경쟁력(후판 가격 하락 & 조선소 노동자 임금 한국의 1/3). 한국은행은 중국 조선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늘어나며 기술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고 분석. 최근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 심화되는 점은 중국 조선업에 도전과제가자 한국에게 기회로 분석함

Key Chart: 한-중 조선업 밸류체인 부문별 경쟁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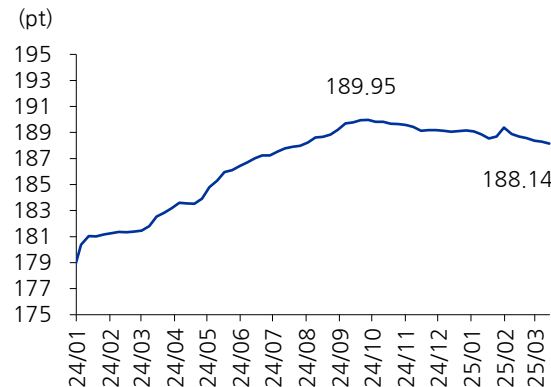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3/10~03/16)

[상선/해양]

- 대만 양밍, LNG 컨선 13척 발주 공식화. 韓 조선소 경합
- 현대삼호·삼중, 완하이 발주 메탄올선→LNG선 변경 협상
- 삼성중공업, 브라질서 1.9조원 셔틀탱커 수주 임박
- 삼성중공업, FLNG 4기 수주 목전. 총 8조원 규모 예상

[특수선]

- 한화오션, 美함정 수리 6개월만에 인도. 수백곳 수리
- 美 하원 군사위에서 韓 등 동맹국 조선소 함정 건조 고려
- 매카시 "존스법 수정해 韓서 美함정 건조할 것" 언급
- 방사청, KDDX 5척 종합발주 검토. 17일 분과위서 논의
- HD현대·LIG넥스원, 'HDS-1500 수출형 잠수함' 최초 공개
- HD현대·한화오션, 캐나다 방문. 6년 내 잠수함 납품 공언
- 칠레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한화오션·HD현대 물망

[기타]

- HD현대마린엔진, 1,035억 규모 선박엔진 공급계약
- 미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추진. LNG 개발사업 논의 전망
- LNGC 등 주요 선종 항속 사상 최저 기록
- 우즈베크 현지서 인력 양성 국내 조선소에 투입
- 울산시, APEC 정상회의 관련 트럼프 대통령 초청 서한

[글로벌]

- 폴란드 국방차관, 독일서 '오르카 프로젝트' 실사 진행
- 필리, 美 다목적 훈련함 건조 마지막 선박 용골거치식
- 美 조선 부흥 계획, 美 소비자 연간 300억달러 비용 초래
- 모잠비크 LNG 미 수출입은행서 47억 달러 대출 재승인
- 델핀 미드스트림, LNG 수출 허가 기한 연장 승인